

강소기업 만들기 특례보증 '인기'

전북신보, 1주만에 79개 업체 상담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지난 3월 23일 농협은행 및 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중인 '행복한 강소기업 만들기 특례보증' 보증상품에 대해 중소기업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특례보증은 시행 후 지금까지 79개 업체에 77억원을 상담해 시행 1주만에 상담액 기준 소진율 42.6%(지원규모 180억원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3일에는 김제시 순동에 소재하는 특장차 제조업체 (주)진보 사업장에서 제1호 보증서 발급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신보 김용무 이사장과 최용구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 참석해 제1호 보증서 발급을 축하했으며, 도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활성화에 양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주)진보의 최원범 대표는 "경기침체 장기화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전북신보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게 돼 많은 도움이 됐다"며, 특례보증에 대한 인기가 높은 만큼 특례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인기는 전북신보가 대출은행과 협의해 최고 대출금리를 연 3%중반 이내로 낮추고 도가 최장 4년간 연 2~3%의 이차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고객 부담금리를 최저 0.48%(보증요율 연 0.8% 별도)로 낮춰 중소기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농협은행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해 급격한 시중금리 상승을 완화하는 등 전북신보의 친(親) 기업 보증정책에 부응하는 우대지원을 통해 전 Win-Win하는 상생모형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전북신보 김용무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지원을 통해 '허리기업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지난 3월 23일 농협은행 및 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중인 '행복한 강소기업 만들기 특례보증' 보증상품에 대해 중소기업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제'라는 전북도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선도할 도내 강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전북신보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는 일부 우려를 불식하고 보증수혜층 다각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행복한 강소기업 만들기 특례보증' 자금의 지원대상은 업력 1년 이상의 신용등급 6등급 이

상(1~6등급)인 제조업 전업을 30%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최고 2억2,000만원 까지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지원 신청에는 사업자등록증과 결산재무제표(3개년도) 및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230-3333) 또는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 선임 경영진 보강

이스타항공은 3일 최종구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 경영진을 대폭 보강하고 제 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신임 대표로 취임한 최종구 대표는 1964년 전남 여수 출생으로, 순천고와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케이아이씨 전무를 거쳐 2013년 2월부터 이스타항공 부사장으로 재직했고, 최근까지 이스타항공 자회사인 공항여객서비스 회사인 이스타포트 대표를 함께 맡아왔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영업력 강화를 위해 손두상 부사장, 조필재 부사장을 새롭게 영입해 해외노선 확대 및 전략적 영업 활동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손두상 부사장은 연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 후 아시아나항공 시드니 지점장, 서울여객 지점장, 한국지역본부(본부장)를 거쳐 BK여객사 대표를 역임하는 등 현장 영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다.

또한 조필재 부사장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 후 오랜 기간 대한항공 영업계획실, 일본노선 팀장,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며 영업기획 및 노선운영 등 영업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쌓아왔다.

최종구 신임 대표는 "대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기존의 업무 경험과 다양한 대외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 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올해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제2의 도약 원년의 해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개공, 전주 만성지구 종교·의료용지 공급

전북개발공사에서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종교용지와 의료용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4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지난 2월 공사 준공으로 현재 즉시 사용가능하고 아파트 및 법조타운 확장과 단독주택의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금이 매우 적기이다.

종교용지 3필지 공급규모는 면적 1,916~2,565.8㎡에 공급예정가격은 9억3,800만원~15억6,500만원이며, 건축제한사항은 건폐율 60%, 용적률 150%, 최고층수는 3층이하로 적용되고, 용도지역은 제1종 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다.

의료시설용지(1필지) 공급규모는 면적 3,478.9㎡에 공급예정가격은 34억9,000만원이며, 건축제한사항은 건폐율

60%, 용적률 230%,최고층수는 7층이하로 적용되고,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다.

특히, 이번 공급하는 토지들은 주변에 대단위 공동주택용지(8개소, 5,497세대)와 초등학교, 중학교가 교역예정으로 입지여건이 뛰어나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급되는 종교·의료용지는 4일~14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운비드를 통해 신청받아 17일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낙찰자가 결정되며, 계약체결은 20일~21일까지(2일간)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에서 공급공고문 및 참고자료를 참고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063-280-7421(보상판매사업단)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 근로자 증가 "탁상행정 탓"

"고용허가제 통해 타업종 또는 타사업장 이동 불가능"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혼란과 불법이 많아지는 것은 제도 탓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은 타 산업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는 제조업, 농업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이 불법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모양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월 고용동향브리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외국인 취업자 총 수는 늘었지만 건설업 취업자의 비중은 감소했다. 2014년 외국인 근로자 중 건설업 취업자는 10.1% 수준이었지만, 2015년 9.2%, 2016년 8.8%까지 감소했다.

이 같은 근로자 수 정체는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따른 방문취업 동포(H-2)의 규모가 2010년 이후 그대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고용률, 실업률, 인력부족률,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산업 인력공단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일손 부족 문제에서 반격을 떨쳐져 있는 종합건설업체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고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사업장 변경금지 원칙',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운영'의 문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받은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타업종으로 또는 타사업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 규정은 외국인의 이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고, 현실에선 더 나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욕구로 인해 불법 근로자가 양산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고용규모 산정시엔 사업체가 아닌 건설현장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근로자가 같은 업체의 타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공사 종료', '행정청에 신고' 등의 조건에 따라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수주산업, 건설생산방식 등 산업현장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인재용 기자

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연도대상 수상자 확정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은 2016년도 NH손해보험 연도대상 수상자로 사무소부문 7개 농·축협, 개인부문에 8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무소부문 최우수 사무소는 남원농협·흥덕농협이며, 우수 사무소는 익

산농협·오수관촌농협·광활농협, 일반보험부문 최우수사무소는 무진장축산농협이 수상을 하게 된다.

특히 남원농협은 3년 연속 최우수 사무소로 선정돼 농협손해보험 '종합울스타사무소'로 수상하게 되는 큰

영광을 안게 됐다. 개인부문은 배성란(남원농협), 최은임(동강재농협), 신미영(장계농협), 최영덕(익산농협), 전경아(순창농협), 김미경(남원원예농협)과 신인상에 정미진(남원농협), 일반보험부문 장려상에 배두성(고창부안축협)이 수상을 받게 된다.

김미자 총국장은 "전북지역의 여건

상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기법으로 농협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올해에도 농가소득 연5,000만원 달성과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농·축협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실시

전북은행과 전북도장애인복지관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9회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공모전'을 실시한다.

올해로 9회째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꿈, 소망, 희망,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초·중·고·대학생은 8월 지에 본인이 그린 그림을, 도민이라면 문과 산문 중 자유롭게 선택해 원고지 매수 제한 없이 글 부문에 응모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3일부터 21일까지이며, 수상자 발표는 5월 4일이다. 접수는 전북은행 본점 및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권익사태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각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84명의 수상자에게는 전북은행장, 전북교육감상을 비롯한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www.jbanc.co.kr) 및 전북도장애인복지관(www.jbwc.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재용 기자

순창 종합 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

